

전남도, 담양에 '은퇴자 도시' 만든다

대덕면에 1067억 들여 단독 191가구·타운하우스 70가구 체협·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갖추고 2020년 분양

전남도가 1067억원을 들여 담양 대덕면에 '은퇴자 도시'를 조성한다. 전남도는 은퇴자 도시인 '새꿈도시' 건설을 위해 지난 9일 도청에서 주왕중합건설과 투자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주왕중합건설은 담양군 대덕면 매산리 일원 21만1000㎡ 부지에 '새

꿈도시'를 조성한다. 도시민과 은퇴자 유치를 위한 261가구(단독 191가구, 타운하우스 70가구) 규모의 주택단지과 체협시설·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갖춘다. 새꿈도시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연내에 마치고 내년 상반기 1단계로 51가구를 착공해 2020년 분양한다.

매산지구 새꿈도시가 완성되면 500여명의 인구가 유입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남 인구 늘리기 정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새꿈도시는 전남 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은퇴 후 전남으로 귀농·귀촌하는 이들이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 차원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 새꿈도시 조성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100가구 이상 전원주택과 편

의시설·프로그램 등을 갖춰 도시 은퇴자,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분양하기 위해 도입됐다. 민간투자자에게는 30억 원 범위에서 공공기반시설비 지원, 인허가 기간 단축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전남도는 새꿈도시 후보지로 40곳을 지정했으며, 이 중 장흥 로하스타운에 50가구 129명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담양 대덕지구(100가구)와 무안 월선지구(239가구)는 내년 착공 예정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제주 감귤 북한행

'북 송이버섯' 답례로 200t

청와대는 11일 북한 측에 제주산 귤 200t을 선물로 보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오늘 아침 우리 군 수송기가 제주산 귤을 싣고 제주공항을 출발, 평양 순안공항으로 향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서호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이 수송기를 함께 타고 평양으로 가 선물을 북측에 인도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김 대변인은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당시 북측이 송이버섯 2t을 선물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남측이 답례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굵은 북한 주민들이 평소 맛보기 어려운 남쪽 과일이며 지금이 계절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정했다"며 "대량으로 보내 되도록 많은 북한 주민들이 맛있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담았다"고 말했다. 귤은 10kg 상자 2만개에 담아 이날과 12일 이틀에 걸쳐 하루에 두 번씩 모두 네 차례로 나눠 운반된다.



공군 C-130 수송기가 11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산 감귤을 싣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당시 북측이 송이버섯 2t을 선물한 것에 대한 답례로 제주산 감귤 200t을 11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북으로 보낸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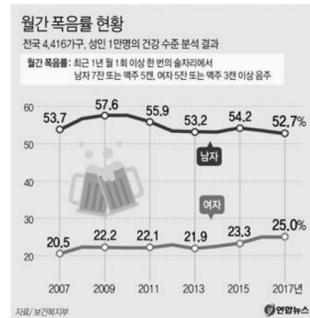
'월 1회 이상 폭음' 男 52.7%·女 25.0%

남 흡연율 38.1% 역대 최저

우리나라 성인 남자 2명 중 1명, 여자 4명 중 1명은 월 1회 이상 폭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이상 남성 5명 중 2명은 비만, 3명 중 1명은 고혈압, 5명 중 1명은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앓는 등 남성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다만 성인 남자 흡연율은 38.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간접흡연 노출률도 감소하는 등 흡연 지표는 개선됐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검진 결과와 면접을 통해 얻은 전국 4천416가구, 1만명의 건강 수준 분석 결과다.

우리나라 국민의 음주 행태는 계속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19세 이상 성인의 월간 음주율(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은 62.1%(남자 74.0%, 여자 50.5%)로 2005년 조사 시작된 이래 가장 높았다. 여자 월간음주율도 지속해서 증가해 지난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월간폭음률(최근 1년 동안 월 1회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 7잔 또는 맥주 5캔, 여자 5잔 또는 맥주 3캔 이상 음주는)은 39.0%(남자 52.7%, 여자 25.0%)에 달했다. 연령별 폭음률을 보면, 남자는 20대(54.8%), 30대(57.9%), 40대(59.1%)가 모두 50% 이상이었고, 여자는 20대(45.9%)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연합뉴스

"전두환·노태우 베트남 학살 경험 '광주학살' 잔혹한 범죄로 이어져"

제2회 아시아문학상 수상 베트남 바오 닌

"전두환 노태우가 광주학살을 자행했던 것은 그들이 베트남전(월남전쟁)에 참전해 양민 학살의 실정 경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제2회 아시아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베트남 소설가 바오 닌(66·사진)은 선정 직후 언론과의 대화에서 "박정희 정권 당시 베트남전에 참여했던 부사관들 중 일부가 광주 5·18 때도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았다"며 "이 부분은 베트남전과 광주학살이 긴밀히 연관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바오 닌은 수상 소식이 알려진 후 언론과의 대화에서 20세기 베트남전과 광주 5·18에 대한 작가로서의 관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이 언급했다. 아시아문학페스티벌 조직위원회(위원장 백낙청)는 제2회 아시아문학상 수상자로 베트남 소설가 바오 닌을 선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바오 닌은 대표작 '전쟁의 슬픔' 등의 작품을 통해 전쟁의 의미와 상처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져왔다"며 "시공간을 넘나드는 독특한 방식으로 전쟁의 슬픔을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밝혔다. 선정 직후 바오 닌은 언론과의 대화에서 "80년 5월 당시 전쟁도 아닌 상황에서 무장한 공수부대원들이 민중회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시민을 향해 무차별 발포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잔혹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베트남 입장에서 당시 월남전에 참여한 한국군은 야만적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었다"며 "베트남은 전쟁 이후 모든 도시가 파괴되고 '보트피플' 같은 비극을 겪어야 했다"고 밝혔다. 작가 바오 닌은 1969년 17세에 소년병으로 군에 입대해 1975년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까지 참전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의 첫 장편 '전쟁의 슬픔'은 전쟁이 인간의 영혼에 얼마나 큰 고통과 상처를 남기는지 사실적으로 그려 평단의 찬사를 받았다. 대표작 '전쟁의 슬픔'은 베트남 작가협회 최고작품상, 런던 인디펜던트 번역문학상, 덴마크 ALOA 외국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16개국 언어로 번역·출판됐다. 한편, 아시아문학상은 아시아문학인들의 문학기반을 만들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한화 2000만원 상금이 수여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카슈끄지 마지막 말 '숨막혀'...봉지 씌워 목졸라"

알자지라, 터키 친정부 매체 팀장 인터뷰

"숨 막혀, 살려줘"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소속의 '암살조'에게 지난달 2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살해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가 맞이한 최후 순간의 긴박한 상황이 간접적으로 전해졌다. 중동 뉴스채널 알자지라 방송은 터키의 친정부 신문 사바흐의 탐사보도팀 나지프 케르만 팀장과 인터뷰를 10일 보도했다. 이 인터뷰에서 케르만 팀장은 "카슈끄지는 총영사관에 들어가자마자 사우디에서 온 팀에게 제압됐다"며 "그의 머리에 봉지를 씌우고 7분간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말했다. 케르만 팀장은 "이 순간 카슈끄지의 외

침이 녹으셨는데 이 음성 파일에서 그는 '숨막혀, 살려줘. 봉지를 벗겨줘. 난 폐소 공포증이 있다 말아야'라고 소리쳤다"고 전했다. 이어 "사우디에서 온 팀은 그의 시신을 토막 내는 과정에서 자루 여러 개를 바닥에 깔아 바닥에 피가 스며들지 않게 했고 팀의 법의학 전문가가 주도해 이 '작업'을 약 15분간 진행했다"고 말했다. 카슈끄지의 시신은 모두 다섯 부분으로 훼손된 뒤 큰 가방에 담겨 차로 총영사관과 가까운 총영사의 관저로 옮겨졌고, 사우디 팀이 관저 정원의 우물에서 일부를 인멸했다는 게 케르만 팀장의 주장이다. /연합뉴스

★투자자 모집★

- 경매 입찰/낙찰 물건
- 연 30%이상 수익가능
- 소유권/근저당으로 채권보장

(주)오천경매.010-3605-5000

입야

지분물건/문중산 환영

바로삽니다.010-6834-7400

광주광역시 인구조번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드든'육아 성공비법

함께 하면 든든 육아 성공비법

- 직장난치문화 제로법
- 수퍼맘 방지법
- 육아대디 지지법
- 직장 가족 이웃
- 육아후수 주의법
- 드든육아 동참법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불균형개선
광주광역시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가 함께 합니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계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다스코지 세라코지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 이름 **다스코!**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 이름 **세라코!**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 태양광 영업 인재 모집

ONE-STOP TOTAL SOLUTION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를 모집합니다!

부	담당업무	자격요건	근무지	
다스코	전략기획	전략기획	· 사업담당 분석 가능자, 경력 10년 이상	화순
	신사업개발	영업	· 태양광영업 경력자	
세라코	수정관리	R&D	· 전기공학 관련 전공자 (공학계)	나주
	생산관리 (전도재료)	영업	· 설계영업 경력자	
		R&D	· 요철 관리와 전경사 유대	

· 접수처: 062)513-2121, mcs@dscc.kr, 접수시간: ~ 18:00까지

공고 제2018-2호

부동산 매각공고

● 매각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 111-14 외 7필지		
대지	111-14, 112, 112-19, 112-20, 114-5, 190-12, 112-31, 116-16	7,693.0㎡	총 8필지
건물	본관	26,097.57㎡	지하3층 ~지상12층
	별관 (주차빌딩/스튜디오/창고)	6,056.03㎡	지하1층 ~지상8층

● 매각예정가격 27,194,598,000원

● 매각방법

- 1) 우선매수협상대상자 선정
선정기간 : 2018.11.13 ~ 2018.11.23까지
- 2) 우선매수협상대상자 중 최고가 매수신청자와 수의계약방식에 의한 계약 체결

● 기타 안내사항 및 문의
(주)광주방송 경영국 ☎062-650-3024

(주)광주방송 대표이사